

2021년 1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유럽 증시,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 시사로 상승 유로그룹 회의, '유로 회복 기금 적시에 지급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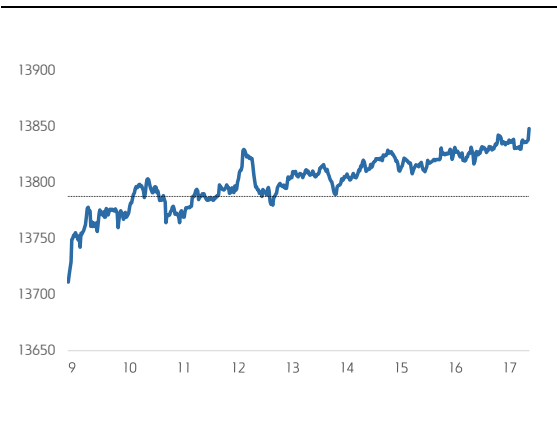
### 유럽 증시 변화 요인: 유로그룹 회의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코로나 관련 경제 봉쇄 이슈가 지속되며 하락 출발했으나 중국 경제 지표 및 유로 그룹 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전환에 성공. 다만 남유럽 부채 비율 급증 등을 논의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은 제한. 한편, 기업 M&A 등으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업종과 신재생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독일 +0.44%, 영국 -0.22%, 프랑스 +0.10%, 유로스톡스 50 +0.09%)

백신 접종이 재고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이 조만간 가속화 될 것이며, 유로 회복 기금의 자금이 적시에 지급 될 것이라고 발표. 코로나 이후 유로 지역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미국과의 통상정책, 통화 및 금융부문 등에 대해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위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음. 이 소식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낙폭을 줄여 나가며 상승 전환하게 만든 요인.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남유럽의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 물론 GDP 의 60%로 설정된 부채 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부터 논의 하기로 해 영향은 제한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는 기후 관련 발언을 중점적으로 언급. 베일리는 코로나가 세계적인 영향을 줬고, 특히 신흥시장이 심각했다고 언급. 그렇지만 미국, EU, 일본, 영국 중앙은행들이 3 개월 동안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경제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 그런 가운데 "기후 변화를 위한 백신은 없다" 며 코로나 보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이 더 크다며 향후 투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투자와 혁신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및 LED 비용이 급감했으며 이는 배터리, 수소 등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 관련 발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상승

독일 닥스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13.93	-2.33	홍콩항셱	28,862.77	+1.01
KOSDAQ	944.67	-2.05	영국	6,720.65	-0.22
DOW	30,814.26	휴장	독일	13,848.35	+0.44
NASDAQ	12,998.50	휴장	프랑스	5,617.27	+0.10
S&P 500	3,768.25	휴장	스페인	8,254.50	+0.29
상하이종합	3,596.22	+0.84	그리스	787.76	-0.30
일본	28,242.21	-0.97	이탈리아	22,498.89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유럽 자동차, 은행, 철강, 반도체 업종 강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합병한 스텔란티스(+7.57%)는 첫 거래일에서 급등했다. 두 회사는 합병으로 글로벌 4위 자동차 업체가 된 데 따른 경쟁력 강화 기대가 확산된 점이 강세 요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임러(+0.73%), BMW(+0.12%) 등 여타 자동차 업종도 강세로 전환했다. 다만, 폭스바겐(-0.45%)는 매물이 이어지며 상승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 철강업체인 티센크루프(+7.04%)는 철강 사업의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 이는 철강 산업의 활황 기대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높아지자 아르셀로 미탈(+2.42%)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독일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2.79%)은 골드만삭스가 GDP확장 가속화, 자동차 반도체 수요, 전기차 규제 모멘텀의 진전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는 목표 주가를 27.5유로에서 42.7유로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까르프(-6.92%)는 지난 목요일 프랑스 정부가 매각을 반대하자 캐나다 다국적 소매 유통업체인 코체 타르드(+0.58%)가 인수를 포기한 여파로 급락했다. 프랑스의 넥상스(+1.72%), 덴마크 풍력 터빈 생산업체 베스타스(+0.95%), 영국의 스코티시 앤 사우스런(+0.63%)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경우는 기후 관련 이슈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신재생 에너지 상승 기대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5.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했다. 특히 중국의 허베이성 긴급 봉쇄 소식은 독일, 프랑스의 경제 봉쇄 강화 소식과 더불어 투자심리를 위축 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차익 실현 욕구가 확산된 점도 부담이었으며 여기에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회 통과 불확실성 부각도 영향을 줬다. 이 여파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일부 대형주에 대한 매물 출회되며 KOSPI 지수는 한 때 3,000pt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일 중국 증시는 소매판매 위축으로 우려했던 긴축 우려가 완화되자 비철금속, 화학, 기계 등 경기 민감주와 CES 관련 전자기기 등이 상승을 이끌며 강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는 바이든의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기대,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의 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언급,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서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 등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마감 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변화는 한국 증시의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기대를 높인다. 여기에 인피니온 등 반도체 업종, 스텔란티스 등 자동차, 티센크루프 등 철강, 넥상스, 베스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주도해 관련 업종의 반등이 기대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중국 소매판매 둔화

중국 GDP 성장률은 6.5%로 발표돼 예상(6.2%)을 상회했다. 산업생산도 7.3%로 예상(6.9%)을 상회했다. 다만, 고정자산 투자가 2.9%로 예상(3.3%)을 하회했고, 소매판매도 4.6%로 예상(5.5%)을 하회했다. 실업률은 5.2%로 예상과 부합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제한된 변화 속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CME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브렌트유는 코로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며 0.6%대 하락했다. 다만, 최근 약세에 대한 반발 매수 또한 이어지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각국의 경제 봉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과 관련 의회 통과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 여파로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변화는 제한 되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국 채권 시장은 휴장인 가운데 미국 국채 선물이 시간 외로 소폭 하락해 국채 수익률 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유로존 국채 선물 또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자 하락해 유럽 각국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금은 적극적인 유로존 정책 대응 기대로 시간 외로 소폭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GDP 성장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0%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36	휴장	+0.23	Dollar Index	90.753	-0.02	+0.32
브렌트유	54.75	-0.64	-1.63	EUR/USD	1.208	-0.02	-0.58
금	1,829.90	휴장	-0.30	USD/JPY	103.68	-0.16	-0.56
은	24.866	휴장	+0.93	GBP/USD	1.3586	-0.03	+0.50
알루미늄	1,972.00	-0.95	-1.87	USD/CHF	0.8907	-0.03	+0.04
전기동	7,971.50	+0.28	+1.37	AUD/USD	0.7685	-0.23	-0.16
아연	2,682.50	-0.61	-3.07	USD/CAD	1.2753	+0.16	-0.24
옥수수	531.50	휴장	+7.10	USD/BRL	5.3001	+0.02	-3.72
밀	675.50	휴장	+5.75	USD/CNH	6.496	+0.17	+0.26
대두	1,416.75	휴장	+3.06	USD/KRW	1103.90	+0.41	+0.60
커피	128.15	휴장	+3.60	USD/KRW NDF1M	1105.05	+0.08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084	휴장	-6.25	스페인	0.076	+1.90	+1.90
한국	1.710	-2.00	+2.50	포르투갈	0.015	+1.70	+2.40
일본	0.055	+1.20	+2.00	그리스	0.679	+2.70	+5.10
독일	-0.527	+1.60	-3.10	이탈리아	0.629	+1.70	+6.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